

이라크 원유 생산량 회복된다

1일 평균 생산량 150만배럴 수준 ... 외국 석유기업 지원 절실

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1일 평균 150만배럴 수준을 회복했다.

이라크 미국 군정 폴 브리머 최고행정관은 9월13일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162만4000배럴이었으며 10일 동안 1일 평균 생산량이 약 150만배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.

이에 앞서 타미르 가드반 이라크 석유장관 직무대행은 9월9일 원유 생산능력이 1일 평균 200만배럴로 증대됐으며 머지않아 지속적으로 1일 평균 1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·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가드반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 석유기업들의 지원 아래 궁극적으로 원유 생산능력을 하루 평균 600만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.

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인 이라크는 터키로 뺀 북부 유전지대의 주 송유관이 저항 세력의 파괴행위로 제기능을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남부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.

한편, 이브라힘 바흐르 알-올룸 이라크 석유장관 지명자는 런던의 아랍어 일간지 <알-하야트>와 인터뷰에서 장관에 정식 취임한 뒤 9월 말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받았다고 밝혔다.

이라크는 2003년 4월 미군 주도 연합군에 의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OPEC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16>